

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분석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김영희 (kbukyh@kdb.co.kr)

- ◆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'경제 총 집중 노선'에 의한 경제건설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재천명하고, 이를 반영하여 '19년 국가예산 수입지출계획을 편성
- ◆ 경제제도 개편, 자력갱생 강화, 과학기술 도입, 지방의 권한 강화, 소비품 및 주요 건설사업 등에 의해 대내경제에서는 성과가 기대되나, 남북경협 등 대외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상존

□ (경제 중시)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('19.4.11차)에서 '경제 총 집중 노선'에 의한 경제건설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재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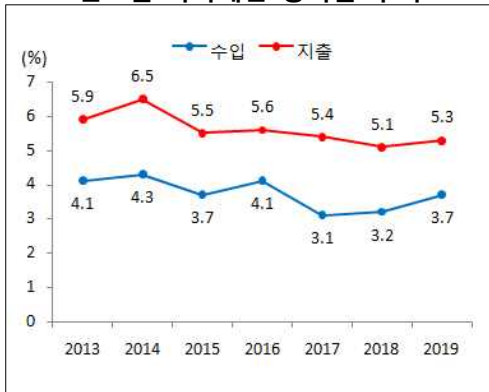
-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*을 통해 경제건설을 국가 중심과업으로 특별히 강조
 - * "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입니다."(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중)
- 경제사령탑이었던 박봉주 내각총리*가 지난 4월 10일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데 이어,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최고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중시의 방증으로 풀이
 - * 박봉주는 개혁성향의 경제관료이며, '02년 '7.1조치'를 추진한 것으로 해임된바 있음

□ (국가예산) '19년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 계획은 지난해 보다 높게 편성된 가운데, 수입예산은 대북제재 지속을 고려한 항목별 증가율로 편성되었으며, 지출예산은 경제와 과학기술부문이 강조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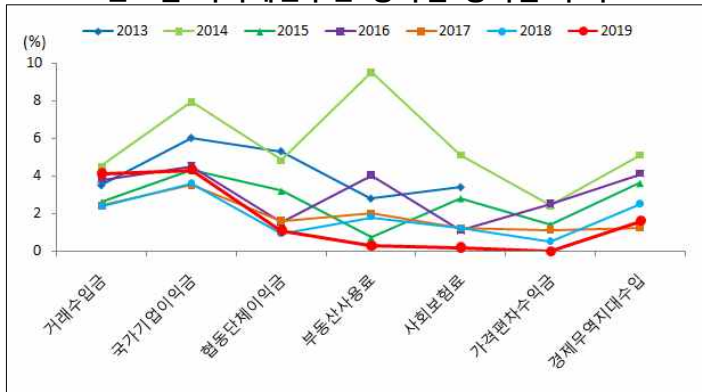
- '19년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은(3.7%, 5.3%) 전년(3.2%, 5.1%)대비 각각 0.5%p, 0.2%p 높게 편성
- 예산수입의 경우 항목별 증가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, 이는 금수산업* 부문에서의 생산성 저하에 주로 기인
 - * '17.8월과 '17.9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통해 석탄, 철광석, 섬유,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

- 부동산사용료수입은 '14년에 9.5%라는 높은 증가율로 편성된 적이 있으나, '19년 낮은 증가율(0.3%, 전년대비 $\Delta 1.5\%p$)은 주택건설의 둔화를 의미
- 경제무역지대수입의 낮은 편성(1.6%, 전년대비 $\Delta 0.9\%p$)은 대북제재로 인해 나선경제무역지대 진출기업 활동이 위축된 결과

연도별 국가예산 증가율 추이



연도별 국가예산수입 항목별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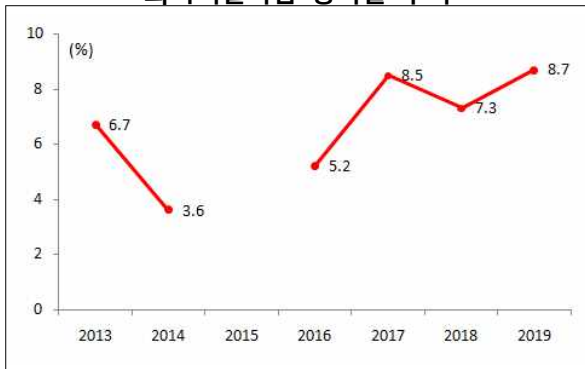
- 예산지출의 경우 경제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역량집중 기조를 반영하여 편성
 - '19년 국가예산 지출 중 경제부문 예산지출 비중은 47.8%, 경제부문 예산지출 증가율은 평균 5.9%로 전년(47.6%, 5.3%)보다 높게 편성
 -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지출 증가율은 8.7%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가장 높게 편성,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
 - 지난해 '경제 총 집중 노선'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은 '국방과학기술'에서 '경제 과학기술'로 연구대상이 변화되었으며, 당국은 전체 인민의 '과학기술인재화' 실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
 - 김정은 위원장은 금번 시정연설에서 과학기술부문 투자를 늘리도록 지시

□ (경제전망) 경제제도 개편, 자력갱생 강화, 과학기술 도입, 지방의 권한 강화, 소비품 및 주요 건설사업 확대 등에 의해 대내경제에서는 성과가 기대되나, 남북경협 등 대외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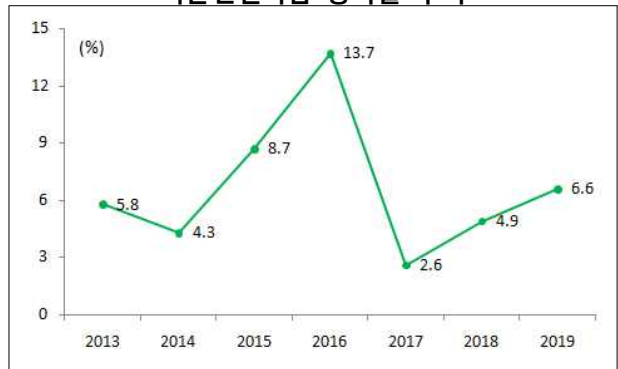
- 가격체계, 재정제도, 금융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영활동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
 - * "경제관리의 중요 고리들인 가격, 재정, 금융문제를 경제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서도 현실적 의의가 있게 해결하여 기업체들과 생산자들이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."(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중)

-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추진되고 있는 자력갱생은 ‘시장적 관리방법’하에서의 자력갱생으로 과거 ‘계획적 관리방법’하에서의 그것과 달리 시너지효과가 기대됨
 - 자력갱생과 더불어 ‘전민 과학기술 인재화’에 의한 다양한 과학기술과 지방에 부여된 권한은 중앙과 지방, 그리고 기업차원에서 생산성과를 낼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경영환경으로 판단됨
 - * “도, 시,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자연 지리적 유리성과 경제 기술적 및 전통적 특성을 옹기 살려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. 국가적으로 지방이 자체로 일떠서고 발전해나갈 수 있게 권한을 주고 실무적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.” (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중)
- 북한이 소비품에만 불과하고 있는 거래수입금(부가세) 증가율은 4.1%로 ‘17년과 ‘18년 대비 1.7%p 높게 편성한 것은 올해 중앙과 지방 경공업부문의 가동률과 생산성 제고를 의미
-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, 순천인비료공장, 양덕온천관광지구, 온포온실(하우스) 농장, 어랑천발전소, 단천발전소,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등 중요대상 건설에서 성과 예상
 - 중요대상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며, 올해 기본건설 부문 투자 증가율은 6.6%로 전년(4.9%)대비 1.7%p 높게 편성

과학기술자금 증가율 추이



기본건설자금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자료 참조

- 최고인민회의에서 언급된 자력갱생과 비핵화 해결의 장기화 등은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대외무역감소와 경협재개의 어려움을 예상
 - 고강도 대북제재 첫해인 ‘18년 對中무역은 57.7%, 對中수출은 87.7% 감소하였으며, ‘19년은 해외과건근로자 전원철수로 외화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대외경제 어려움 상존